▌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 [2009. 12] : 203~231

스페인어대명사구문연구와 여과장치의 적용*

-강조, 전치사동반, 고유대명사구문을 중심으로

박 숙 희**
(Park, Suk-Hee)

<Abstract>

Construcciones Pronominales en Español y el Filtro para Distinguirlas - Centrando la Atención a las CPs Intensivas y las de Suplemento y las Propias

Nuestro trabajo tiene por objetivo analizar las construcciones pronominales(Cps) clasificándolas en ocho CPs desde los puntos de vista sintáctico, semántico y pragmático. Habiendo analizado anteriormente las CPs impersonal, pasiva, reflexiva, media interna y media genérica, en el presente trabajo estudiaremos los tres grupos restantes: las CPs intensivas, las de suplemento y las propias. Las CPs intensivas se refieren a las que tienen los pronombres pseudorreflexivos para perfeccionar las acciones verbales; las CPs de suplemento son las que requieren un complemento de régimen; y, en las CPs propias se conjugan los verbos obligatoriamente con sus pronombres pseudorreflexivos.

Analizaremos las tres CPs tanto desde el punto de vista formal y sintáctico, como desde el semántico y pragmático. Y a partir del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A00048).
** 서울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원
E-mail: carmencita@nate.com

dicho análisis, identificaremos los rasgos distintivos y los criterios referidos tanto al sujeto gramatical y el nocional como al objeto gramatical y el nocional. Los resultados de este análisis ofrecerán a los estudiantes de la lengua española, el conocimiento necesarios para distinguir fácilmente las CPs presentadas en este trabajo de las otras. Basándonos en aquellos criterios distintivos, volveremos a utilizar el 'filtro para caracterizar las diferentes CPs'. Este trabajo puede contribuir a la enseñanza de la gramática española permitiéndoles a los alumnos acercarse con una mayor facilidad al llamado 'terreno movedizo' de la sintaxis del español.

[Key Words: CPs Intensivas/ CPs de Suplemento/ CPs Propias/ Filtro para las CPs]
[주제어: 강조대명사구문/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 고유대명사구문/ 여과장치]

1. 들어가는 말

스페인어의 대명사구문(Construcciones Pronominales, 이하 CPs)[1]들은 종류도 많고 그 용례가 복잡하다. 일반적인 대명사구문의 정의는 대명사구문에 사용되는 접어대명사가 재귀성(reflexividad)이 있든 없든 간에 주어와 동일한 인칭의 재귀대명사(pronombre reflexivo)나 의사재귀대명사

1) 본 연구에서 말하는 '대명사구문'은 재귀대명사 *Se*가 해당동사의 인칭과 수에 일치하는 구문을 의미한다. 단, 간접목적어의 형태론적 변형체인 *Se(Le, Les)*는 본 연구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이후 사용되는 대명사구문은 스페인어로 'CPs'로 간략하게 표시하는 바, 동일 명칭의 다른 개념에 대한 문제는 논의의 가치가 없다.

(pronombre pseudorreflejo)[2] 혹은 준재귀대명사(pronombre cuasi-rreflejo)[3]의 형태로 출현하는 구문이다. 이 대명사구문이 일반 학습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법항목으로 꼽히는 이유는 각 대명사구문들에 나타나는 문법적 구성요소들이 갖는 통사자질이나 의미자질에 대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몇몇 대명사구문들을 분류 불가능한 대명사구문으로 묶어버렸던 것도 대명사구문들 간의 문법적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여러 대명사구문들의 판독에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위해 스페인어 대명사구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별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그 적용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해당 대명사구문들에 대해 각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분석을 실시하여 나머지 대명사구문들과의 판별이 가능하도록 판별조건들을 제시하고 앞서 개발한 대명사구문판별여과장치에 그 적용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 대명사구문 연구의 마지막 소과제로, 대과제에서 분류한 대명사구문 총 8개, 즉 1) 무인칭대명사구문(CPs impersonales), 2) 수동대명사구문(CPs pasivas), 3) 재귀대명사구문(CPs reflexivas), 4) 내적중간태대명사구문(CPs medias internas), 5) 속성중간태대명사구문(CPs medias genéricas), 6) 강조대명사구문(CPs intensivas), 7)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CPs de suplemento), 8) 고유대명사구문(CPs propias) 중 마지막 세 개 강조대명사구문,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 고유대명사구문을 다룰 것이다.

---

2) '의사재귀대명사'는 대명사구문에서 사용되는 재귀대명사가 전혀 재귀성(reflexividad)이 없이 형태만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라틴문법정신이 반영된 해석으로 Salvador Gutiérrez(1977-1978:416-452), García-Miguel(1985:309-310), Nelson Cartagena(1972:149,209)에게 찾아볼 수 있다.

3) '준재귀대명사' 역시 '의사재귀대명사'의 명명 근거와 다르지 않으며, Bello(1981;457)는 이것이 사용되는 준재귀대명사구문(construcciones cuasi-reflejas) 속에 분류가 까다로운 여러 대명사구문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습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대명사구문의 판별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간편한 여과장치의 개발과 적용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적용대상 또한 언어학자가 아닌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학문적 논의 보다 학습현장에서 이해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문법적 단위와 개념을 사용하여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2. 강조대명사구문

2.1. 강조대명사구문의 정의

스페인어 대명사구문 중에는 재귀대명사의 형태가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명사구문에서 사용되는 대명동사형(formas pronominales)[4]이 그것의 대립형태인 비대명동사형(formas no pronominales)을 갖고 있으며, 접어대명사 형태가 재귀성 없이 강조적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a. Te estás en casa.
b. (Te) estás en casa.
(2) a. No nos esperamos esa respuesta.
b. No (nos) esperamos esa respuesta.

(1b)과 (2b)에서 보면, 동사의 인칭 및 수와 일치하는 접어대명사가 동

4) 여기서 '대명동사형'란 모든 인칭과 수에 제한 없이 접어대명사가 동사와 함께 굴절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며, 그 대립형인 '비대명동사형'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한다. 대명동사형은 후반부에 언급될 고유대명사구문(CPs propias)에서 사용되는 '대명동사(verbos pronominales)'- 대명동사형과 비대명동사형간의 대칭구조 없이 유일하게 대명동사형만을 허용하는 동사-와 용어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일한 문장에서도 문법성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채 생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사용된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가능하며 동사의 상을 완결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명사구문에 대해 학자들이 내리는 정의는 단순한 문체적 요소, 간접목적격대명사, 이해 혹은 심성여격대명사(dativo de interés o dativo ético), 준재귀대명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나[5] 본 연구에서는 동사의 상을 보충하고 접어대명사의 생략이 가능한 대명사구문의 특징을 '강조적(intensiva)' 혹은 '수의적(opcional)'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그 대명사구문에 대해서는 '강조대명사구문(CPs intensivas)' 혹은 '수의대명사구문(CPs opcionales)'이라 명명하되, 본고에서는 편의상 강조대명사구문이라는 명칭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이다.

2.2. 강조대명사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론적 특징

앞서 간략히 정의한 강조대명사구문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용된 접어대명사가 인칭과 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굴절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대명사구문, 즉 무인칭대명사구문과 수동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가 3인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아주 대조적이다. 따라서, 일반 학습자들에게는 접어대명사의 자유로운 굴절은 강조대명사구문을 다른 대

5) 박숙희(1997; 4-6)에 학자들의 정의와 그에 따른 논의가 세 가지 즉, 의사재귀대명사, 여격대명사, 강조적용법의 대명사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강조대명사구문의 정의와 규정에 대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고, 교육학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강조대명사구문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각 학자들의 정의는 Bello(1981), Gili Gaya(1973), Lenz(1935), Bobes(1974), Ordóñez(1977-78), Cartagena(1972), Fernández Ramírez(1987), Llorach(1982) García-Miguel(1985), López-García(1975), Rodríguez-Izquierdo(1980), Bull(1952), Lázaro Carreter(1964), Gooch(1982), Molina Redondo(1974), Narbona Jiménez(1989), 박영미(2003)를 참조하길 바란다.

명사구문으로부터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판별기준이 될 수 있다.

(3) a. Me voy.
b. Te vas.
c. Juan se va.
d. Nos vamos.
e. Os vais.
f. Ellos se van.

강조대명사구문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3)처럼 자동사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 (2)의 예문에서 보듯이, 계사동사인 estar 뿐 아니라 타동사 esperar도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접어대명사를 제외하고, 동사만을 판독할 때 강조대명사구문은 무인칭대명사구문의 경우처럼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허용되는 변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나머지 대명사구문들과의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

통사론적인 입장에서 강조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는 자동구문에서나 타동구문에서나 어떤 재귀성도 실현하지 않으므로, 중복 재귀형인 a sí mismo의 적용이 불가하다.

(4) *Juan se va a sí mismo.
(5) *María se comió las galletas a sí misma.

(4)와 (5)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강조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는 본래의 재귀성을 소유한 재귀대명사구문의 재귀대명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강조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는 주어의 행위 결과가 다시 주어 자신에 돌아오는 재귀성(refleividad)이

없으므로, [−REFLEXIVO]의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4),(5)와 같은 자동구문에서도 절대 간접목적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정리하면, 자동구문에서나 타동구문에서나 강조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가 실현할 수 있는 통사적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강조대명사구문의 문법주어에 대한 판독은 다른 대명사구문에 비해 그리 까다롭지 않다. 이 구문의 문법주어는 명시성을 갖기 때문에 생략의 경우는 있으되 항상 주어가 존재한다. 주어의 존재는 무인칭대명사구문과 강조대명사구문을 판별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강조대명사구문의 주어는 단수와 복수가 모두 가능하여 수적 제약이 없다. 또한 강조대명사구문의 주어가 허용하는 의미자질은 항상 [+ANIMADO]인데, 이는 구문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동사 특히 타동사인 *먹다, 마시다* 등의 경우에 그 성격이 '소비'의 의미[6]를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ANIMADO]인 주어만이 소비와 관련된 행위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메네스(1989:66)가 제시한 다음 예문에서, 소비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ANIMADO] 자질의 주어가 행위수행이 가능한 여러 타동사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사가 할당하는 의미역은 행위자 혹은 경험자이다.

(6) Me inventé una historia tan complicada que nadie se la creyó.
(7) Me barrí y fregué todo el local en dos horas.
(8) ¿Te has leído ya la novela que te presté?
(9) Me he subido todos los paquetes yo solito.
(10) ¿Te quieres ganar mil duros en un rato?
(11) Me he visto todas las películas de Carlos Saura.

6) Sanz(2000:40), Bobcock(1970), 곽재용(2004)은 소비동사인 *comer, beber, fumar, gastar*등의 제한된 동사들이 강조대명사구문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12) Me conozco bien sus argumentos.
(13) ¿Dónde te has encontrado esa cartera?
(14) Mis hijos se han comido el jamón y se han bebido el vino de los invitados.
(15) Andrés se fuma un paquete de tabaco diario.

(6)-(15)에서 보다시피, 반드시 소비와 관련되지 않아도 동사의 상적 표시자로서 화자의 의지에 따라 완료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동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소비의 개념과 상관없는 타동사뿐 아니라, 몇몇 자동사에서도 강조대명사구문이 허용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다.

(16) Juan se durmió.
(17) Mañana nos vamos a Caracas.
(18) Ahora queremos liquidar todo aquello y venirnos a vivir a Madrid.

(16)-(18)에서 사용된 자동사의 대명동사형은 타동사인 (6)-(1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어대명사의 통사적인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나, 접어대명사는 완결의 느낌으로 동사의 상을 보충하는 동사의 굴절소이다. 즉, 의미론적 측면에서 동사의 행위실현에 있어 대명동사형을 취할 경우 비대명동사형이 사용되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완성된 의미로 전달된다. 다시 말해 강조대명사구문의 대명동사형은 [+PERFECTIVO]의 자질을 얻게 되며, 이것은 비대명동사형형태와 비교해 상대적 완료성(perfectividad relativa)[7]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접어대명사는 통사적 기

7) 박숙희(2002:47)에서 '상대적 완료성(perfectividad relativa)'을 '강조대명사구문의 대명사형태가 비대명사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사의 완료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능 없이 다만 상적 표시자(marcador acpectual)로서 존재하며, 이로써 완결 혹은 완성의 의미를 부가시킨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완료상으로서의 상적표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해석을 붙여주는 것이 좋다. 자동사이건 타동사이건 강조대명사구문에 사용된 동사에 대한 해석은 *-하다*가 아닌 *-해버리다*로 전달하면 강조대명사구문의 의미론적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16)-(18) 역시 *잤다*를 *자버렸다*, *간다*를 *가버린다*, *오고 싶다*를 *와버리고 싶다*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조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 사용을 허락하는 제약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타동사와 함께 하는 강조대명사구문 (6)-(15)을 보면 직접목적어에 대한 강한 제약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6)-(15)의 직접목적어를 한정하는 한정사를 생략한다면 강조대명사구문은 문법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정사를 명시하지 않은 불가산 명사 혹은 무관사 명사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다.[8] 그리고 직접목적어는 한정성의 갖고 [-ANIMADO]의 자질을 갖는다. 주어진 의미역은 대상역이다. 전치사의 사용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예문 (6)-(15)의 직접목적어 앞에 무관사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비문이 만들어진다.

(19) *Me inventé (una) historia tan complicada que nadie se la creyó.
(20) *Me barrí y fregué (todo el) local en dos horas.
(21) *¿Te has leído ya (la) novela que te presté?
(22) *Me conozco bien (sus) argumentos.
(23) *¿Dónde te has encontrado (esa) cartera?

8) 강조대명사구문의 직접목적어에 대한 제약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다. 산스(2000), 라미레스(1986), 산체스(2002), 레돈도(1974), 히메네스(1989), 오떼로(1999), 박숙희(1997), 곽재용(2004)을 참조하시오.

한편, 자동사가 출현하는 강조대명사구문에서의 제약은 직접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제약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타동사의 강조대명사구문와 마찬가지로 대명동사형의 상적 속성이 갖는 완결의 의미와 상충되지 않도록 지속부사(adverbio durativo)의 출현을 방해한다.

(24) a. Juan se comió dos paellas en diez minutos.
b. *Juan se comió dos paellas todo el día.
(25) a. Me barrí todo el local en una hora.
b. *Me barrí todo el local durante una hora.
(26) a. El bebé durmió tres horas.
b. *El bebé se durmió tres horas.
c. El bebé se durmió en el acto.

(24b), (25b)는 각각 *하루 종일, 한 시간 동안*이라는 비종결부사어(adverbio atélico)[9]인 지속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완료상을 갖는 강조대명사구문 형성을 방해한다. 즉, 동사의미와 부사어간의 상적 충돌을 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4a), (25a)는 *십분 만에, 한 시간 만에*라는 종결부사어(adverbio télico)는 강조대명사구문의 완료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상적 표시자로서의 접어대명사의 출현을 의미, 화용적인 측면에서 정당화시킨다. (24)-(25)에서는 살펴 본 바, 강조대명사구문에 사용된 대명동사형과 그 대립형인 비대명동사형은 상적부사어에 관련하여 상보적 분포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26a)에는 *tres horas*라는 지속부사가 대명동사형 *dormirse*가 아닌

9) 윤재학(2001)은 영어의 동사의미와 시간부사와의 관계연구에서 *I sang for two hours/*in two hours, I wrote a letter *for two hours/in two hours* 등의 예문에서와 같이, 동작상 동사와 수행상 동사가 각각 비종결부사어와 종결부사어를 배타적으로 요구한다고 보고 한국어조사를 영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지적한다.

비대명동사형 *dormir*와 함께 사용되어 *아이는 세 시간 동안 잤다*라는 문장의 문법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반면 (26b)의 해석 **아이는 세 시간 동안 잠들어버렸다(잠들기 시작했다)*의 비문처리는 지속부사와 대명동사형 *dormirse*가 양립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26c) *아이는 바로 잠들어버렸다(잠들기 시작했다)*에서는 대명동사형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이유는 출발 혹은 시작의 부사와 *dormirse*의 동사상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dormirse*와 같이 자동사가 강조대명사구문으로 쓰인 경우 [+PERFECTIVO] 자질 보다는 [+INCOATIVO]의 자질을 할당받을 수 있으며, 본래의 동사의미 위에 출발과 시작을 강조하는 상적해석이 추가된다. 따라서 *dormirse 잠들어버리다* 혹은 *잠들기 시작하다*는 지속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아래 예문에서도 *irse, marcharse*는 출발을 강조하는 [+INCOATIVO] 자질을 부여받는다.

(27) Elena se va.
(28) Ellos se marcharon.

위에서 살펴본 자동사 혹은 타동사와 함께 쓰이는 강조대명사구문의 문법주어의 위치를 보자. 강조대명사구문의 주어는 항상 전치하는 SV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전치주어는 구정보 자질을 부여받기 때문에 한정성의 특징을 유지한다. 앞서 살펴본 모든 강조대명사구문의 주어는 지시적인 의미의 정명사구로 구정보의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강조대명사구문은 단언문이다.

3.3. 강조대명사구문의 여과장치 적용

<표1>은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대명사구문 판별 여과장치를 이용해 강

조대명사구문이 어떻게 판독되는지 알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여러 특징들을 적용하여 강조대명사구문만이 나타낼 수 있는 여과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여과장치의 적용과정은 판독기준을 ①-⑬단계까지 수직으로 여과시키면서, 각 단계마다 괄호 안에 제시된 판정기준에 따라 좌측 혹은 우측 수평이동을 결정한다.

<표1>

① 동사 판독 I
(자동사/타동사)

O ← ⬇ → O

② 동사 판독 II
(3인칭 제한/무제한)

X ⇍ ⬇ → O

③ 문법주어 판독 I
(존재 유/무)

O ← ⬇ ⇏ X

④ 문법주어 판독 II
(단수/복수)

O ← ⬇ → O

⑤ 문법주어 판독 III
(생물/무생물)

O ← ⬇ ⇏ X

⑥ 문법주어 판독 IV
(한정/비한정)

O ← ⬇ ⇏ X

⑦ 문법주어 판독 IV
(전치/후치)

O ← ⬇ ⇏ X

⑧ 문법목적어 판독 I
(존재 유/무)
O ← ⬇ → O
⑨ 문법목적어 판독 II
(생물/무생물)
X ⇐ ⬇ → O
⑩ 문법목적어 판독 III
(전치사 유/무)
X ⇐ ⬇ → O
⑪ 문법목적어 판독 IV
(한정/비한정)
O ← ⬇ ⇒ X
⑫ 동사의 상 판독
(완료/불완료)
O ← ⬇ ⇒ X
⑬ 단언문/제언문 판독
(단어문/제언문)
O ← ⬇ ⇒ X

강조대명사구문의 여과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단계에서 강조대명사구문은 자동사와 타동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좌우측 모두 수평이동 한다. ②단계에서는 무인칭대명사구문과 수동태대명사구문과 달리, 주어와 동사의 인칭과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우측 수평이동 한다. ③단계에서는 문법주어가 존재하므로 좌측 수평이동 하고, ④단계는 문법주어가 단수와 복수 모두 가능하므로 좌우측 수평이동을 실현한다. ⑤단계는 문법주어가 [+ANIMADO]이므로 좌측 수평이동이 실행되고, ⑥단계는 항상 문법주어가 구정보 자질을 표시하면서 한정성을 가지므로

좌측 수평이동 한다. ⑦단계에서는 문법주어가 항상 전치형이므로 역시 좌측 수평이동을 행한다. 문법목적어의 존재 유무를 묻는 ⑧단계에서는 강조대명사구문의 경우 자동사와 타동사가 각각 사용될 수 있으므로 좌우측 수평이동 한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직접목적어가 존재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타동구문에서의 강조대명사구문을 기준으로 직접목적어를 판별조건으로 하는 ⑨, ⑩, ⑪의 단계를 반드시 수평이동으로 답해야 한다. 따라서 강조대명사구문은 ⑨단계에서 [−ANIMADO]의 자질을 보여 우측 수평이동 하고, 직접목적어 앞의 전치사유무를 묻는 ⑩단계에서는 [−ANIMADO]인 직접목적어는 전치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측으로 수평이동 한다. 직접목적어의 한정성 여부에 관한 ⑪단계는 강조대명사구문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강조대명사구문이 타동사로 이루어졌을 때는 직접목적어에 대한 의미통사적 제약이 따른다. 한정적이고 구체화된 명사구만 허용하고 무관사 명사는 불허하므로 좌측 수평이동 한다. 다음으로, 동사의 상적 해석에 관한 ⑫단계에서는 좌측으로 수평이동 한다. 물론 자동사가 사용된 강조대명사구문은 [+PERFECTIVO]의 상적자질 보다는 [+INCOATIVO]가 강하게 부각되지만, 후자가 모든 대명사구문에 적용가능한 판별기준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전자인 완료상만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강조대명사구문의 대명동사형은 완료와 종결의 의미로 전달되어 [+PERFECTIVO]의 특징을 가지므로 좌측 수평이동 한다. 마지막으로 ⑬단계에서는 문법주어의 전치와 구정보의 자질로 인하여 좌측 수평이동을 한다.

3.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

3.1.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정의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CPs con suplemento)이란 접어대명사가 모든 인칭과 수에 일치하여 동사와 함께 굴절하면서 전치사구의 동반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대명사구문이다. 이 전치사구는 <전치사 +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술어를 보충하는 일종의 보어로 직접목적어와 다르다.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동사가 요구하는 전치사구는 전치사동반보어(suplemento)[10]의 통사적 기능을 실현한다.

(29) Me encontré con mi amigo ayer por la noche.
(30) Juan no se acuerda de su nombre.

하지만 위와 같은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을 한국어로 해석할 때, 전치사구 앞에 조사 *-을/를*을 자연스레 붙이게 된다. (29) *어제 밤에 내 친구를 만났다*, (30) *후안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에서 보듯이, 해당 전치사구 앞에 조사 *-을/-를*의 자연스런 첨가현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치사동반보어를 마치 직접목적어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는 대명동사형이 직접목적어가 아닌 전치사동반보어 기능을 갖는 전치사구를 허용하는 구조에 한정해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을 분석

10) 본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본 고에서는 동사가 전치사 동반을 강제성을 띠고 요구하므로 '전치사동반보어'로 칭할 것이다. 이것은 *Debe carecer de imagenes visuales, Ella piensa en su ex novio, Juan no quiere asistir a la conferencia* 등의 예문에서 사용된 전치사구로, 술부를 보충하는 보어에 속한다. 이 경우 동사가 전치사를 강제로 요구하기 때문에 '전치사지배보어(complemento de regimen preposicional obligado)'라고 칭하기도 한다. 서경석(1999)에 수록된 예시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할 것이며, 사용된 대명동사형이 아래 예문과 같이 그 대립형태인 비대명동사형을 갖고 있는 경우로 연구를 제한한다.

(31) Por fin encontré la llave perdida.
(32) La junta acordó la subida de la cuota.

위 두 예문에서는 대명동사형 *encontrarse, acordarse* 대신, 비대명동사형인 *encontrar, acordar*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31)은 *드디어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32)는 *위원회는 회비의 인상을 결정했다*로 해석되어, 대명동사형과 함께 전치사동반보어가 수반되었던 (29)과 (30)의 해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대명동사형은 비대명동사형이 갖는 원래의 동사의미를 변형시키는 어휘적 형태소[11]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대명동사형-비대명동사형의 대립형태가 공존하는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을 다룬다. 단 비대명동사형의 전치사동반보어의 허용 여부는 본 연구의 방향과 무관하므로 논외로 하고, 단순히 두 동사 형태들의 대칭적 개념에만 의의를 둘 것이다.

3.2.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론적 특징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은 앞서 본 강조대명사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어대명사가 동사와 함께 모든 인칭과 수에 일치하여 굴절한다.

---

11) 니꼴라스(2008)는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접어대명사를 어휘적 형태소(morfema modificador léxico)로 보고 다음 두 개의 예문을 제시한다: *Los políticos se acordaron de los tiempos de paz 정치인들은 평화로운 시절을 기억했다; Los políticos acordaron la paz 정치인들은 평화를 합의했다.*

(33) Estas leyes no se ajustan a la realidad.
(34) María se desprendió de sus joyas.
(35) Me confundí de calle.
(36) Te aseguraste de que la puerta quedaba bien cerrada?
(37) ¿Os fiáis de mi criterio?
(38) Nos enteramos de la triste noticia.

접어대명사를 삭제한 동사의 형태 즉 비대명동사형은 (31)와 (32)의 예에서처럼 (33)-(38)에서도 비대명동사형 *ajustar, deprender, confundir, asegurar, fiar, enterar*는 타동사이다. 사용된 접어대명사가 전혀 재귀성이 없으므로 [-REFLEXIVO]의 자질을 가지며, 이것은 재귀대명사구문과의 판별조건에 해당한다. (33)-(38)의 문법적 주어 *estas leyes, María, (Yo), (Tú), (Vosotros), (Nosotros)*의 존재와 그것의 수적 무제한에 관한 판독조건은 쉽지만 매우 중요한 대명사판별조건이 된다.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에 사용되는 대명동사형의 종류가 다양하여 문법주어의 의미자질은 [+ANIMADO]인 *María, (Yo), (Tu), (Vosotros), (Nosotros)* 뿐 아니라, [-ANIMADO]인 *estas leyes*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에는 직접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한 의미자질이나 한정성 등의 판별조건은 의미가 없다. 직접목적어 대신 전치사동반보어를 갖는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은 다른 대명사구문들과의 판독과정에서 직접목적어 관련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문법주어는 위의 예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두 전치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명사구문 역시 강조대명사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상 SV구조를 갖는다. 구정보 자질을 부여받은 전치주어는 한정성을 유지하며 지시적인 의미의 정명사구를 취한다. 또한, 정명사구만 사용되는 전치주어는 구정보의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은 거명된 대상 혹은 사건을 술부에서 설명하는 단언문에 속한다.

3.3.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여과장치 적용

앞서 살펴본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특징들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여과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표2>

① 동사 판독 I
(자동사/타동사)

X ⇐ ⬇ ➜ O

② 동사 판독 II
(3인칭 제한/무제한)

X ⇐ ⬇ ➜ O

③ 문법주어 판독 I
(존재 유/무)

O ➜ ⬇ ⇒ X

④ 문법주어 판독 II
(단수/복수)

O ➜ ⬇ ➜ O

⑤ 문법주어 판독 III
(생물/무생물)

O ➜ ⬇ ➜ O

⑥ 문법주어 판독 IV
(한정/비한정)

O ➜ ⬇ ⇒ X

⑦ 문법주어 판독 IV

(전치/후치)

O ⬅ ⬇ ⇏ X

⑧ 문법목적어 판독 I

(존재 유/무)

X ⇍ ⬇ ➡ O

⑨ 문법목적어 판독 II

(생물/무생물)

⬇

⑩ 문법목적어 판독 III

(전치사 유/무)

⬇

⑪ 문법목적어 판독 IV

(한정/비한정)

⬇

⑫ 동사의 상 판독

(완료/불완료)

⬇

⑬ 단언문/제언문 판독

(단어문/제언문)

O ⬅ ⬇ ⇏ X

<표2>에서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에서 사용된 대명동사형은 반드시 타동사인 비대명동사형을 그 대립형으로 갖고 있으므로 ①단계에서 우측 수평이동 한다. ②단계에서는 인칭과 수에 제한이 없어 역시 우측 수평이동 한다. ③단계는 문법주어가 존재하므로 좌측 수평이동 한다. ④, ⑤단계에서는 각각 문법주어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ANIMADO]의 특징을 가지므로 좌우측 수평이동 한다. ⑥단계에서는 문법주어가 항상 정명사구이므로 좌측이동하고, ⑦단계는 전치주어이므로 좌측이동 한다.

문법목적어 판독 단계인 ⑧-⑪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대명사구문이므로 ⑧단계에서만 우측이동한 후 ⑨, ⑩, ⑪에서 모두 수직이동 한다. 여기서 수직이동을 하는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은 선행연구에서 판독했던 중간태대명사구문, 수동태대명사구문과 함께 동일한 여과과정은 거친다. ⑫ 단계에서는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은 상적해석이 의미가 없으므로 수직이동 한다. 마지막 ⑬단계는 SV구조를 묻는 판별조건이며, 고유대명사구문의 주어는 구정보의 자질을 가져 단언문이므로 좌측으로 수평이동 한다.

4. 고유대명사구문

4.1. 고유대명사구문의 정의

고유대명사구문(CPs propias)[12]은 어떤 경우에도 접어대명사를 삭제할 수 없는 본연의(inherente) 대명사구문으로, 대명동사형의 대립형인 비대명동사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예가 다른 대명사구문 만큼 많지 않다.[13] 일반 학습자들에게 있어 고유대명사구문에 대한 판별은 사전에 의

12) 고유대명사구문(CPs propias)의 대명동사형은 대조되는 비대명동사형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립대명동사(verbos pronominales aislados) 혹은 순수대명동사(verbos pronominales puros)라고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유 혹은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여 '고유대명동사(verbos pronominales propios)'라고 명칭을 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명동사와 동일한 개념이나, 대명동사라는 틀 안에 접어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모든 대명동사형을 광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유대명동사라는 협의적 정의를 따른다. 곽재용(2007)에서도 대명동사는 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3) 오떼로(1999:1469)는 고유대명동사의 예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치사동반보어를 요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다: *acalambrarse, acatarrarse, afiebrarse, gangrenarse, agolparse, contonearse, desganitarse, encadarse,*

지해 이루어진다. 찾고자하는 동사가 사전에 대명동사형만 허용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의 비대명동사형의 사용불가를 의미한다.

(39) a. Elena se suicidó.
b. *Elena suicidó.
(40) a. Te quejabas del dolor en la rodilla.
b. *Quejabas del dolor en la rodilla.

(39)과 (40)에서 사용된 대명동사형 *suicidarse, quejarse*는 그것의 대립형이 존재하지 않아 (39b)와 (40b)가 비문으로 처리 된다. 이와 같이 어떤 대명동사형이 그것의 대립형을 허용하지 않는 동사를 본 연구에서는 '고유대명동사(verbos pronominales propios)'라 하며, 대명동사형의 배타적 사용이 실현되는 대명사구문을 본 연구에서는 고유대명사구문이라 칭한다. 본연적으로 접어대명사가 사용되는 고유대명동사는 다른 어떤 대명사구문에서도 볼 수 없는 변별적 특징이다. 물론,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에서도 대명동사형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강제적으로 전치사동반보어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대명동사형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은 전치사동반보어가 없을 경우 비대명동사형이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고로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대명동사형은 고유대명사구문의 고유대명동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40a)와 같이 고유대명사구문에서도 전치사동반보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치사동반보어대명사구문과 고유대명사구문의 공통된 판별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전치사동반보

---

enfurruñarse, ensimismarse, fugarse, rebelarse, vanagloriarse, suicidarse; atenerse a, atreverse a/con/contra, dignarse a, abstenerse de, incautarse de. jactarse de, querellarse con, obstinarse en.

어가 전자에서는 필수적이나 후자에서는 수의적이라는 점에서 두 대명사구문은 다르게 분류된다.

4.2. 고유대명사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론적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고유대명사구문는 접어대명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가 불가능한 유일한 대명사구문이라는 사실이다. 학습자들이 사전만 확인해도 판별이 가능한 첫 번째 판별조건이기도 하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고유대명사구문 역시 앞서 살펴본 강조대명사구문과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처럼, 동사와 접어대명사 활용에 있어서 수와 인칭에 대해 어떤 규제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무인칭대명사구문과 수동태대명사구문을 걸러낼 수 있는 판별기준이다.

(41) Teresa se arrepintió de lo que había hecho.
(42) Me jacté de mi habilidad en los negocios.
(43) Nos abstuvimos de votar.
(44) ¿Cómo os atrevéis a marcharos sin mi permiso?
(45) Te desmayaste.
(46) Los recuerdos se agolpaban en mi mente.
(47) Miguel se contonea para impresionar a sus amigos.

여기 제시된 예문 (41)-(47)의 문법주어는 1인칭 단수에서 3인칭 복수까지 6가지 형태의 주어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고유대명동사 역시 인칭과 수에 제한 없이 굴절한다. 예문 (41)-(47)에 제시된 고유대명동사는 각각 *후회하다, 우쭐하다, 금하다, 감히-하다, 기절하다, 몰려오다, 으쓱대며 걷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동사들은 전달되는 의미가 자동사의 느낌이 강해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자가 된다. 하지만, (47)에서처럼 때론 주어가 행위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유대명사구문의 주어는 경

험자 혹은 행위자의 의미역을 할당받으며, 위의 예에서 보듯이 [+ANIMADO] 혹은 [−ANIMADO]의 자질을 모두 부여받는다. 동사의 성격에 대한 판별조건 중 자동사/타동사에 대한 선택은 고유대명사구문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고유대명사구문에 사용된 동사는 비대명동사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대명동사형의 자동사/타동사 판별조건은 여과 없이 통과한다.[14)]

사용된 접어대명사는 강조대명사구문과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과 마찬가지로 재귀성이 전혀 없으므로 [−REFLEXIVO]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재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 sí mismo*와 양립할 수 없다.

(48) a. Juan se vanagloria de su habilidad.
b. *Juan se vanagloria de su habilidad a sí mismo.

(48b)에서 보여준 문법성 상실은 고유대명사구문에 재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도, 고유대명동사는 직접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굳이 *a sí mismo*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41)−(47)의 모든 예에서 보았듯이 직접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고유대명사구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목적어와 관련한 모든 판별조건들은 무의미하다.

고유대명사구문에서도 주어는 전치하여 SV구조를 유지한다. 항상 정명사구인 주어가 사용되어 구정보의 자질을 가진다. 따라서 고유대명사구문은 거명된 사건이나 대상을 술부에서 설명하는 단언문에 해당한다.

---

14) 오떼로(1999:1469−70)는 고유대명동사를 "짝 잃은 양(ovejas sin su pareja)"이라 칭하고, 의미적 가치가 부가된 자동사로 정의한다. 또한 고유대명동사를 다시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로 양분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 입장에서 대명사구문을 판독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므로 고유대명동사에 대한 비대격 혹은 비능격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4.3. 고유대명사구문의 여과장치 적용

고유대명사구문이 갖는 변별적 특징들을 여과시켜 다음과 같은 판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3>

① 동사 판독 I
(자동사/타동사)
⬇
② 동사 판독 II
(3인칭 제한/무제한)
X ⇍ ⬇ ➜ O
③ 문법주어 판독 I
(존재 유/무)
O ➜ ⬇ ⇏ X
④ 문법주어 판독 II
(단수/복수)
O ➜ ⬇ ➜ O
⑤ 문법주어 판독 III
(생물/무생물)
O ➜ ⬇ ➜ O
⑥ 문법주어 판독 IV
(한정/비한정)
O ➜ ⬇ ⇏ X
⑦ 문법주어 판독 IV
(전치/후치)
O ➜ ⬇ ⇏ X
⑧ 문법목적어 판독 I

(존재 유/무)

X ⇍ ⬇ ➔ O

⑨ 문법목적어 판독 II

(생물/무생물)

⬇

⑩ 문법목적어 판독 III

(전치사 유/무)

⬇

⑪ 문법목적어 판독 IV

(한정/비한정)

⬇

⑫ 동사의 상 판독

(완료/불완료)

⬇

⑬ 단언문/제언문 판독

(단어문/제언문)

O ⬅ ⬇ ⇏ X

고유대명사구문 역시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처럼 직접목적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과과정에 있어 수평이동이 적은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①단계에서 고유대명사구문은 자동사/타동사를 판독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수직이동 하는데, 이는 사용된 동사가 본연적으로 비대명동사형을 인정하지 않는 '짝 잃은 양'이기 때문이다. 동사의 인칭 제한을 묻는 ②단계는 무인칭대명사구문과 수동태대명사구문과 달리 우측 수평이동을 택한다. ③단계에서는 문법주어가 존재하므로 좌측 수평이동 하고, ④단계는 문법주어가 단수와 복수 모두 가능하므로 좌우측 수평이동을 실현한다. ⑤단계는 문법주어가 생물과 무생물 모두 가능한 [±ANIMADO]

이므로 좌우측 모두 수평이동이 실행되고, 문법주어의 한정성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⑥단계에서는 좌측으로 수평이동 한다. 역시 문법주어에 관한 조건인 ⑦단계는 전치형이므로 좌측 수평이동을 선택한다. 문법목적어의 존재 유무를 묻는 ⑧단계에서 고유대명사구문은 직접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측으로 수평이동 한다. 목적어가 없는 모든 대명사구문은 ⑧단계에서 우측이동 후, ⑨, ⑩, ⑪에서 모두 수직이동 해야 한다. 이런 고유대명사구문의 특징은 선행연구에서 판독했던 중간태대명사구문, 수동태대명사구문,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의 여과과정과 동일하다. 고유대명사구문에서 동사의 상적해석은 의미가 없으므로 ⑫단계에서 수직이동 한다. 마지막 ⑬단계에서 고유대명사구문은 문법주어의 전치와 구정보의 자질로 인하여 좌측 수평이동을 한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학습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스페인어 대명사구문 판별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무인칭대명사구문, 수동태대명사구문, 재귀대명사구문, 중간태대명사구문에 이어, 본 연구에서 마지막 세 개의 대명사구문인 강조대명사구문,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 고유대명사구문에 대한 의미통사적 시가 뿐 아니라 화용론적 시각에서도 여러 특징들을 분석하고, 그 판별조건들을 기준으로 대명사구문 판별 여과장치에 적용시켰다. 이 세 대명사구문은 각기 다른 변별적 특징들을 갖고 있으나, 몇몇 조건에서는 공통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전치사동반대명사구문과 고유대명사구문은 목적어와 관련된 여과과정에서, 판별 조건에 답하기 위한 수평이동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여러 단계를 수직이동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다뤘던 세 대명사

구문은 다른 대명사구문들에 비해 판독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본 여과장치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명사구문 판별장치가 새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여과장치 또한 연구자들의 고언을 통해 개선과 수정이 거듭되기 바란다.

참고문헌

곽재용(2004),「논항의 한정성과 양화성 그리고 상적표시자 <SE>의 실현」,『스페인어문학』33, 67-85

_____(2007),「스페인어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에서 나타나는 접어대명사 탈락현상」,『이베로아메리카연구』18, 79-104

박숙희(1997),「타동사와 함께하는 강조의사대명사구문」,『스페인어문학』10, 1-14

_____(2002),「La Opcionalidad y la neutralización del pronombre pseudorreflexivo intensivo」,『스페인어문학』23, 43-60

박영미(2003),「스페인어 여격대명사(pronombres dativos) 활용에 관한 고찰」,『이베로아메리카연구』14, 43-62

윤재학(2001),「Aktionasarten 개념을 통한 영어 시간부사의 이해」,『현대문법연구』23, 149-164

서경석(1999),『스페인어 전치사 지배 구문집』, 송산출판사

Alarcos Llorach, E.(1982),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Bobcock, S.(1970), *The Syntax of Spanish reflexive verb, the parameters of the middle voice*, Mouton: La Haya

Bobes Naves, M. del C.(1974), "Construcciones castellanas con se: análisis transformacional", *RSEL*, 4/1, 87-127

Bellos, A.(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n Ramón Trujillo(ed.),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Cabildo Insular de Tenerife

Bull, W.E.(1952), "The Intransitive reflexive: ir and irse", *Modern Language Journal* 36, 382-386

Cartegena, Nelson(1972), *Sentido y estructura de las construcciones pronominales en español*, P.I.C.L.U.C., Concepción

Fernández Ramírez, S.(1986), *Gramática Española 4: EL verbo y la oración*, Madrid: Arco Libros

García-Miguel, J. M.(1985), "La voz media en español", *Verba* 12, 307-343

Gili Gaya, S.(1973),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Bibliogrf.

Gooch, A.(1982), "Valores semánticos del pronombre reflexivo en el español moderno", *Actas del IV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panistas I*, Salamanca, 695-701

Gutiérrez Ordóñez, Salvador(1977), "Sobre los dativos superfluos", *Archivum* 27-28, 413-452

Lázaro Carreter, F.(1964), "Problemas de terminología lingüística",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II*, Instituto de Cultura Hispánica, Madrid, 383-392

Lenz, R.(1935), *La Oración y sus partes,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l y castellana*, Madrid: Publicaciones de la RFE

López-García, A.(1975), "Algo más sobre se", *Cuaderno de Investigación de*

Filología 172, Publicaciones del Colegio Universitario de Logroño, 45-52

Molina Redondo, J. A. de(1974), *Usos de se*, Madrid: SGEL

Narbona Jiménez, A.(1989), *Sintaxis española: nuevos y viejos enfoques*, Barcelona: Ariel

Nicolás, Matías(2008), www.scribd.com/doc/7541462/Valores-de-SE

Otero, C.(1999), "Pronombres reflexivos y recíproco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Bosque & V. Demonte(eds.), 1427-1517

Rodríguez-Izquierdo y Gavala, F.(1980), "La Pervivencia de la función de dativo en el pronombre reflexivo español se", *LEA* II, 81-102

Sánchez López, C.(2002), *Las construcciones con "se"*, Madrid: Visor Libros

Sanz, M.(2000), *Event and pred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논문투고일자: 2009년 8월 20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1월 10일